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4.(목) 16:00 < 7.25.(금) 조간 > 배포 2025. 7. 24.(목)

무역위, 일(日)·중(中) 열간압연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43.3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7월 24일(목)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 조사 2건,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금년 3월 조사개시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사건은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로 무역위원회는 2024년 2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판정한 바 있으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특허권 침해를 비침해로 재판정하였다.

또한, 2025년 6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주)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을 보고 받았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50)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백숙자	(044-203-5848)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우혜영/강석하	(044-203-5861/5862)
		담당자	주무관	김병주	(044-203-5868)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문현철/장진호	(044-203-5875/5873)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최우준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한상현/최종화	(044-203-5881/588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예비판정]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원심]

□ 조사 개요

○ 신청인 : 현대제철㈜

○ 조사대상공급자 : (日) JFE Steel, Nippon Steel 등 6개社,
(中) Baoshan Iron & Steel, Bengang Steel Plates 등 5개社

○ 조사대상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 **(정의)**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다만, 열연 후판 제품, 열연 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 **(용도)** 냉간압연 제품의 원재료, 건설 구조용(거푸집, 철판망, 방화벽 등), 강관용, 자동차용(내관, 외관, 부속품 등) 등 다양한 산업 생산물의 재료 등으로 사용
- **(관세분류)**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등 38개
  - 기본관세율 5.0~8.0%, RCEP 0%, 한-중 FTA 0%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일본	JFE Steel Corporation 및 관계사	33.57%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관계사	31.58%
	그 밖의 공급자	32.75%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관계사	29.89%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관계사	28.16%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	33.10%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33.10%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33.10%
	그 밖의 공급자	33.10%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역상사로 확인된 Dongkuk Corporation, SeAH Japan Co., Ltd., Sumitomo Corporation Global Metals Co. Ltd., Young Steel Co., Ltd. 등 일본 4개사는 생산자 예비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 조사신청('24.12.19.) → 조사개시('25.3.4.) → 예비판정('25.7.24.) → 본조사

참고2 [예비판정]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원심)

□ 조사 개요

○ 신청인 : LS전선㈜

○ 조사대상공급자 : 형통, 양쯔, 진씽통 3개社

○ 조사대상물품 : 단일모드 광섬유(Single Mode Optical Fiber)

- **(정의)**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7.D중 Low Loss 제품은 제외
- **(용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 네트워크의 정보 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광케이블의 제조용 원료
- **(관세분류)** HSK 9001.10.0000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8.0%, 한-중 FTA 협정세율 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중국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그 밖의 공급자	43.35%

□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 조사신청('25.1.2.) → 조사개시('25.3.7.) → 예비판정('25.7.24.) → 본조사

참고3 〔재판정〕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

□ 조사 개요

○ **(신청인)** 와이어쓰 엘엘씨*

* 미국 화이자(Pfizer Inc.)가 '09년 인수한 자회사(미국 소재)

○ **(피신청인)** 국내기업 A

○ **(특허권)** 다(多)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제1298053호)

○ **(조사대상물품)**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13종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각각의 원액(반제품)과 완제의약품(완제품)

○ **(신청이유)**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 A가 수출 및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 조사 진행 경과

○ 조사신청('19.12.20.) → **판정***('24.2.22, 일부 침해) → 피신청인 행정소송 제기('24.3.21.) → **행정소송 판결**(무역위 패소, '25.6.5.) → 재판정(무역위, '25.7.24)

* 사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에 따라 조사 중지('20.8.20~'23.9.4)

□ 의결

○ **행정소송 판결**(피신청인 특허권 비침해)에 따라 **무역위 재의결(침해 → 비침해)**

참고4 [조사개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 조사 개요

○ **(신청인)**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 주식회사

○ **(피신청인)** 외국기업 A

○ **(특허권)** 하향링크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셀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제1023259호)

○ **(조사대상물품)**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 **(신청이유)**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 A가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

□ 향후 일정

○ 조사신청('25. 6. 24.) → 조사개시('25. 6. 30.) →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6년 초)